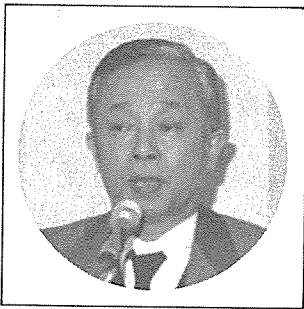


주제강연

“科學技術人 總合으로 國家發展기여”



朴 泰 源

(科總會長)

21世紀 福祉社會를 指向하는 科總의 位相定立

돌이켜보면, 우리 聯合會는 1966년 5월에 개최된 全國科學技術者大會에서 “과학기술의 진흥없이 경제개발이 있을 수 없다”는 科學技術人들의 공통된 인식아래 창립된 이래, 科學技術 專擔部署의 설치를 건의하여 오늘날 科學技術處가 탄생되었고, 전국의 2000여 중견 科學技術者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성안한 “國家研究事業의 導出과 추진전략에 관한 연구”는 오늘날 “國家特定研究事業”으로 발전되어 우리나라 과학기술발전에 큰 공헌을 하였다고 자부하고 있다.

金東一常任顧問님을 비롯한 任員여러분께서 우리 科學技術人의 殿堂이라고 할 수 있는 科學技術會館을 건립하여 초창기 사업활동의 기초를 다진바 있으며, 1978년 바톤을 받으신 閔寬植회장님과 任員 여러분께서 事務處의 機能을 정비, 강화하여 科學技術界를 조직화

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였고 특히, 學會의 學術活動造成을 위한 정부지원을 본격화 하는 가 하면 國內外韓國科學技術者學術會議 개최는 물론 在外科協과의 연계강화를 통하여 해외에 있는 고급두뇌의 國內誘致를 活性化시킴으로써 과총의 역할과 기능을 어느 정도 되 찾고 과학기술 발전에 본격적인 기여를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하겠다.

일단 정상궤도에 진입한 科總은 1984년부터 國家元首가 직접 주재하는 “技術振興擴大會議”의 설치 추진등 각종 政策建議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科學技術 振興에 직접 참여하게 된 점을 간과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렇듯 우리 科總은 創立이래 20년동안 100만 科學技術人의 구심체로서 •科學技術政策의 연구 개발, •學會 學術活動 육성을 위한 지원, •科學技術 정보교류및 國際協力強化, •科學技術 풍토조성및 科學技術人의 권익신장등 國家發展을 뒷받침할 수 있는 科學技術政策의 개발과 활성화에 시대적인 제약과 주

어진 여건하에서 쉬지않고 최대의 노력을 경주해 왔다.

그러나 최근 제6공화국의 출범과 더불어 정치, 사회적 환경이 과거의 權威主義的 體制로부터 民主的 體制로 바뀌어 감에 따라 우리는 이와같이 변형되어 가는 사회발전에 상응하면서 특히 2000년대에는 기필코 先進 福祉社會를 具現하여야 한다는 國民的 염원에 부응하여 우리의 科學技術振興政策을 새로운 시각에서 재조명하고 그 추진방향을 제시해야할 시점에 이르고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우리 科學技術人들은 과거 다소 被動的인 입장에서의 政策立案에 참여했던 자세를 벗어나서 과학기술의 주체로서의 能動的인 位置를 되찾음으로써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현실에 기초한 合理的인 政策을 모색하여 政府에 반영시키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함께 하는 새로운 자세를 정립할 때가 왔다고 하겠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때, 科學技術人의 충분한 科學總의 역할과 使命은 再定立되어야 하고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科學技術을 先導할 수 있는 能動的인 역할이 추구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福祉社會 具現과 科學技術

서기 2000년대가 불과 12년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世紀의 바뀜이라는 大變換期를 앞두고 우리 국민은 매우 큰 꿈과 희망을 갖고 있다. 우리는 해방이후 온갖인내와 각고를 겪으면서 이룩해 놓은 20세기 후반의 經濟的 發展과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民主化 過程을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2000년대에 이르러 경제, 사회, 문화 각 부문에 걸쳐 先進水準의 福祉社會로 진입하고자 하는 願望을 안고 있다. 이러한 願望을 달성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科學技術의 跳躍만이 중요한 關鍵이된다는 두말할 나위도 없다고 하겠다.

이렇듯 科學技術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政府

와 各界가 오래전부터 인식을 같이하고 있으나 이의 진흥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지 못함은 펍 안타까운 실정이다.

이미 성안된 “科學技術長期發展計劃”이 各계의 의견을 종합하여 볼때 수정 보완될 사항은 없는 것인지, 또는 이를 汎國家的으로 시행하는데 障礙요인은 없는 것인지, 하는 문제들이 바로 우리 科學技術人들에게 뿐만 아니라 국가발전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科學技術跳躍의 基盤造成

현재 우리나라의 產業構造는 전자, 전기, 자동차 등 선진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先導產業이 성장을 이루면서 雇傭擴大를 이끌어 나가는 형태로서, 纖維產業 등 재래의 勞動集約的 產業은 賃金上昇과 원화절상등으로 인하여 後發開途國의 거센 挑戰을 받고 있다.

한편 1960년대 이래 반도체, 컴퓨터, 유전공학, 신소재 등의 출현으로 인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技術革命은 지난 2세기전의 產業革命으로 비유된다 하겠으며 현재의 產業社會를 情報化社會로 변형시키고 그에 따라 科學技術이 經濟社會 構造의 중심이 되고 있다.

이러한 世界經濟社會의 추세는 우리 經濟가 현재의 선도산업 뿐만 아니라 우주, 해양, 고도전자, 신소재, 유전공학 등 尖端 產業分野를 계속 발굴하고 육성해 나가야 한다는 과제를 낳고 있다. 이러한 產業을 육성함에 있어 應用開發 研究은 이미 한계에 다달았으며, 基礎科學에 토대를 둔 科學技術 發展의 정도에 따라 이들 產業의 育成은 좌우될 것임이 분명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科學技術 發展을 위한 國際與件은 날로 더욱 어려워만 가고 있다. 保護貿易主義의 강화와 더불어 제품개발에 관련이 되는 기술의 유출은 통제되어 있고 특허권, 저작권 등 지적소유권 보호의 강화로 인하여, 基礎科學

의 知識마저 습득하기 어려워 지고 있는 형편이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결국 앞으로 우리는 우리들 스스로의 힘에 의해 科學技術發展을 이룩해야한다는 외로운 현실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國家的 次元에서의 最優先 科學技術 振興施策이 절실하다 하겠다.

科學技術振興에 대한 國家的 공감대가 형성되어 감과 동시에 앞으로는 經濟發展基盤으로서의 科學 技術의 기능과 더불어 科學 技術이 그 본래적인 기능으로서 갖고 있는 문화, 복지적 측면도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國策課題에서는 비단 尖端科學 뿐만 아니라 勞働者들의 作業環境에 대한 生産工學的 研究나 農民의 윤택한 삶을 위한 기계화 영농과제, 또는 障礙者를 위한 福祉施設 向上課題와 같은 것이 함께 포함 되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基礎

科學의 文化的, 精神的 가치도 더욱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科總은 기초연구와 인력양성의 중추 기관인 大學과 學會에 대한 과감한 투자확대와 지원을 유도하여 大學의 분야성과 같은 참다운 본연의 연구분위기를 조성하는 동시에 學·研·産協同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강구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감당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科學技術 풍토조성

우리 科總이 해나가야할 중요한 역할중에 하나는 科學技術 優位の 풍토를 조성하는 일이라고 하겠다. 과학기술의 중요성과 과학기술 도약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마땅히 관계요소에 科學技術人이 두루 등용되어야 하겠으



며, 현재 他 部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열위에 처하고 있는 상태가 해소되어야 하겠다. 또한 科學技術人의 권익이 신장되고 士氣가 진작되어 연구는 물론 말은 분야에서 더욱 정진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科總이 앞장서야 하겠다.

나아가서는 科學入國과 技術自立의 진박성에 관한 온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靑少年期 부터 창조적 정신을 함양시킬 수 있는 國民科學化運動의 효율적인 추진방안도 모색되어야 하겠다.

科學技術 優位の 風土가 조성되어지기를 被動的으로 기다릴 것만이 아니라 우리 科學技術人들 스스로가 자기 계발에 힘쓰고 國家 科學技術 발전에 헌신하면서 봉사정신을 갖고 하나하나가 대국민 弘報要員임을 자처할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優位風土가 조성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또한 政府次元의 行政組織과 運營上의 問題點도 잡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아무리 훌륭한 계획이 성안된다 하더라도 이를 國家的으로 확정하여 汎部處의으로 수행 하는 데에도 문제점은 없는지? 그동안 科總에서는 초창기부터 科技處의 격상문제라든가, 大統領 諮問機構의 설치등을 건의하여 온 바 있으나 아직도 만족스런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 기회에 효과적인 시책이 보완되어야 할 것을 재삼 강조하고자 한다.

會員團體育성과 自立基盤確立

한편, 우리 科總은 1966년 71개의 團體로부터 출발하여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221개 團體會員을 갖는 우리나라 科學技術人의 總合體로 성장하였다. 과학기술의 主體로서의 우리 회원이 어느정도 일치단결 하느냐에 따라서 아무리 어려운 우리의 주장도 관철할 수 있으리라고 믿으면서 이와같은 우리의 意志는 결국 2000년대 福祉社會를 구현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한다.

아울러 이러한 모든 機能과 役割은 科總이 재정적으로 완전한 자립을 이루고 이들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의 모색이 급선무라고 하겠다.

結 語

이상에서 2000년대를 불과 10여년 앞둔 現時點에서 科總이 수행하여야 할 몇가지 當面課題와 役割을 살펴 보았다.

- 先進福祉社會를 지향하는 科總의 位相 定立문제
- 技術自立의 기반확충을 위한 基礎研究와 人力養成문제
- 科學技術風土造成문제
- 科總과 會員團體의 협력과 재정비에 관한 문제

등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지만 이밖에도 科總이 2000년대를 향해 수행하여야 할 역할과 사명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考察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서 제시될 것으로 믿고 있다.

결론적으로, 先進和合經濟를 통하여 21세기 福祉社會를 구현하고자 하는 目標은 우리국민 모두가 실현을 念願하고 있는 目標이며 이시점에서 科學技術의 도약만이 이를 달성할 수 있는 길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수단이 라고 하겠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올림픽을 成功시켰던 國力을 앞으로 科學技術 振興에 쏟아야 할 중차대한 課題를 안고 있다.

이와같이 우리 科學技術人들은 다가오는 時代가 科學技術이 國家發展을 主導하는 時代가 될 것임을 확신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責任과 使命을 다시 한번 통감하고 그동안 우리가 하여 놓은 능력과 잠재력을 바탕으로 各界의 意志와 努力을 集結시켜 2000년대 先進福祉社會 건설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모든 지혜를 모아 새로운 科學技術人像과 科總의 位相 定立 해 나가야 할 것이다.